

불평등한 공간으로 변모한 포스트식민 도시* - 메자 음왕기의 『빨리 죽여주오』

하상복**

| 국문초록 |

『빨리 죽여주오』는 1970년대 케냐 도시 소설의 대표 작가로 인정받는 메자 음왕기의 작품이다. 음왕기는 이 소설에서 나이로비와 주변 공간,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하층민의 힘든 삶을 재현한다. 하지만 그는 하층민의 이야기를 단지 전달하는데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하층민을 고통으로 내몬 배경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지만 가혹한 묘사를 통해 배경과 원인을 고민하게 만든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과 원인이 소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살펴본다. 첫 번째로 2장에서 주인공들이 버터내는 지옥 같은 삶을 분석하며, 포스트식민 국가의 실패가 하층민의 삶에 끼친 결과를 고찰한다. 두 번째는 3장에서 주인공이 머무르는 도시, 슬럼, 농장, 지방 등의 공간이 보여주는 불평등의 현실을 통해 포스트식민 국가의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이 글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하층민의 곤경이 식민 지배 이후 고착된 불평등과 빈곤, 국가와 지배 계층의 무책임과 무능, 중산 계층을 포함한 지배 계층의 탐욕과 착취, 신식민 체제 등과 같은 포스트식민 국가의 실패 요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주요어: 메자 음왕기, 『빨리 죽여주오』, 포스트식민 도시, 빈곤, 불평등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부교수(hasangbok@pusan.ac.kr)

| 차례 |

1. 들어가며
2. 지옥 같은 삶을 영위하는 포스트식민 도시의 하층민
3. 새로운 국가의 실패를 증명하는 포스트식민 도시 공간
4. 나가며

1. 들어가며

영어로 창작된 케냐(Kenya) 문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영국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1963년 이후이다.¹⁾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은 1970년대에 이루어진다. 케냐 소설이 놀라울 정도로 두드러진 시기도 이때이다. 이른바 케냐 소설의 황금시대로 부를 정도로 이 시기에 많은 작가가 등장한다.²⁾ 주제도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주제는 중첩되기도 하지만 대개 네 가지 범주로 소개되고 있다. 이 범주는 독립 이후 케냐 문학을 관통하는 핵심적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네 범주는 식민 지배 시기 전후의 케냐를 탐색하는 역사 소설, 전통과 현대 생활방식 간의 갈등을 다루는 소설, 독립 이후 희망을 앗아간 현실을 강조한 환멸 소설, 아프리카 도시의 가혹한 삶을 재현한 도시 소설이다.³⁾

네 가지 소설 범주 중에서 독립 이후 케냐의 현실을 새로운 공간과 주제로 펼쳐낸 범주로 주목을 받은 것이 도시 소설이다. 도시 소설은 당대 케냐의 급격한 도시화와 이 흐름으로 야기된 도시 문제를 다루는 데 쉽다는 점에서 많은 소설가가 선택한 경향이다. 레너드 키베라(Leonard Kibera)가

1) Lars Johansson, *In the Shadow of Neocolonialism: Meja Mwangi's Novels 1973-1990*, Umeå: The Printing Office of Umeå University, 1992, p.11.

2) J. Roger Kurtz, *Urban Obsessions, Urban Fears: The Postcolonial Kenyan Novel*, Oxford: Africa World Press, 1998, p.9.

3) Ibid., p.36.

1970년에 발표한 『어둠 속의 목소리』(*Voices in the Dark*)가 전범으로 알려진 케냐 도시 소설은 1970년대 소설 경향을 대표한다.⁴⁾ 키베라에게서 영향을 받은 많은 소설가가 유사한 주제로 작품을 발표했지만, 다수 비평가가 도시와 관련된 주제를 탁월하게 구현한 도시 소설가로 인정하는 작가는 이 글에서 다를 메자 음왕기(Meja Mwangi)이다.⁵⁾ 음왕기는 다양한 경향의 소설을 발표하며 응구기 와 시옹오(Ngũgĩ wa Thiong'o) 이후 “동아 프리카에 등장한 가장 관심을 끄는 소설가”,⁶⁾ “차세대 응구기”,⁷⁾ “응구기와 더불어 영어로 창작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현대 케냐 작가”⁸⁾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

음왕기의 도시 소설은 이른바 도시 삼부작이라고 부르는 『빨리 죽여주소』(*Kill Me Quick*), 『강변로 아래로』(*Going Down River Road*), 『바퀴벌레 춤』(*The Cockroach Dance*)과 같은 작품이다. 또한 세 작품을 배경을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Nairobi)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이로비 삼부작으로도 불린다.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빨리 죽여주소』는 삼부작 중 가장 먼저 1973년 발표된 작품이다. 주제와 스타일 측면에서 1974년 발표된 『강변로 아래로』와 유사하고 작품 완성도 측면에서 1979년에 출판된 『바퀴벌레 춤』보다 낮은 평가를 받지만, 삼부작의 공통적인 주제를 처음으로 담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 Angus Calder, “Meja Mwangi’s Novels”, G. D. Killam, ed., *The Writing of East and Central Africa*, Nairobi: Heinemann, 1984, p.178; Kurtz, op. cit., p.71.

5) Martina Kopf, “At Home with Nairobi’s Working Poor: Reading Meja Mwangi’s Urban Novels”, Carl-Philipp Bodenstein, Kirsten Rütter, Martina Barker-Ciganikova, and Daniela Waldburger, eds., *The Politics of Housing in (Post-)Colonial Africa*, Berlin: De Gruyter Oldenbourg, 2020, p.102; Donnie Tonnie Kithendu Mello, *Portrayal of Freedom and Existentialism in Meja Mwangi’s Novels*, Beau Bassin: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20, p.2; Kurtz, op. cit., p.123.

6) Calder, op. cit., p.177.

7) Kurtz, op. cit., p.111.

8) Johansson, op. cit., p.1.

『빨리 죽여주오』의 창작 동기는 음왕기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다. 그는 1970년대 초 많은 친구가 중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도시에서 비참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을 소설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창작했다고 밝히고 있다.⁹⁾ 이 동기는 소설 첫 페이지의 헌사에서 드러난다. “어른이 될 때까지 도시의 뒷골목에 있어야만 하는 모든 어린 메자들(Mejas)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¹⁰⁾ 메자는 소설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개별 인물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해 뒷골목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실업 상태의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보면 된다. 음왕기는 자신이 목격한 젊은이들의 좌절과 고통을 함께 느끼며 소설을 통해 그 문제를 케냐 대중을 포함한 독자에게 알려주려는 의도를 헌사를 통해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 뒷골목에서 실업 상태로 힘든 삶을 사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음왕기가 어떤 이유로 탁월한 도시 소설가로 평가되는가. 그 이유는 도시라는 공간과 그 공간에 사는 젊은이들의 현실이 독립 이후 새로운 국가, 다시 말해 포스트식민(post-colonial) 국가의 실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¹¹⁾ 음왕기는 그 실패로 초래된 결과들이 무엇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나이로비의 뒷골목, 슬럼(slum) 등에 거주하는 하층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내며 케냐를 포함한 아프리카 포스트식민 국가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죽여주오』는 도시라는 공간에 펼쳐진 포스트식민 케냐인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9) Bernth Lindfors, “Interview with Mwangi.” *Kunapipi*, Vol. 1.2, 1979, p.70.

10) Meja Mwangi, *Kill Me Quick*, London: Heinemann, 1973. 1쪽 앞 쪽에 기술된 내용임. 이후 소설 내용을 본문에 인용할 경우,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함.

11) ‘post-colonial’을 ‘탈식민’이 아닌 ‘포스트식민’으로 번역한다. 번역은 ‘post-’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많은 경우에 ‘decolonial’를 ‘탈식민’으로 번역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케냐와 동아프리카 문학계에서 널리 인정받는 음왕기 작품의 연구는 케냐를 포함한 아프리카의 기형적인 도시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식민 지배 종식 이후 아프리카인의 삶과 현실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응구기 소설을 중심으로 관심을 받아온 케냐 영어 소설 이해를 더욱 확장하는 계기로도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빨리 죽여주오』에 재현된 포스트식민 도시 공간과 그곳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을 탐색한다. 구체적으로 도시 뒷골목, 슬럼, 농장, 교도소 등을 전전하며 빈곤, 실업, 범죄로 내몰린 하층민의 고통이 어떤 배경과 과정에 의해 고착되고 지속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지옥 같은 삶을 영위하는 포스트식민 도시의 하층민

아프리카 포스트식민 국가의 실패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 아니었다. 1957년 가나(Ghana)가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시작된 포스트식민 국가의 출발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프리카인의 열망과 결단은 서구 제국의 보호 아래 연방 혹은 준자치 정부 형태로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달콤한 유혹과 종속을 거부하고 가난한 독립과 해방을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시켰고, 제국의 식민 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 상황은 아프리카 대륙에 아프리카인이 주도하는 독립 국가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에 대한 낙관은 곧 절망과 환멸로 바뀌었다. 쿠데타, 내전과 독재로 인한 정치의 불안정, 부패와 타락으로 추락한 경제는 아프리카인을 고통과 비극의 삶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식민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세계로 가고자 한 희망의 포스트식민 국가는 아프리카인 스스로에 의해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찬 공간으로 전락되어버렸다.

포스트식민 국가의 실패 원인을 검토한 견해는 차이는 있지만 요점은 분명하다. 특히 실패의 핵심적 원인에 대한 분석은 프란츠 파농(Frantz Fanon), 응구기, 치누아 아체베(Chinua Achebe)의 논의에서 알 수 있다. 파농은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The Wretched of the Earth*)의 3장 「민족의식의 함정」(*The Pitfalls of National Consciousness*)에서 아프리카 독립 국가의 퇴보를 초래한 원인을 파헤친다. 그가 주목하는 퇴보의 원인은 독립 국가의 대의를 배신하고 국가를 신식민적(neocolonial) 체제로 추락시킨 아프리카 중산 계층과 엘리트,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며 독재로 권력을 유지하는 지도자와 정당, 그리고 이런 지배 계층이 악용하는 종족주의 문제 등이다. 응구기의 주장 핵심도 파농과 같다. 그는 『중심 옮기기』(*Moving the Centre*)에서 파농이 비판한 타락한 중산 계층을 가리키는 “아프리카 부당 이득자들,”¹²⁾ 제국주의와 결탁한 반민족, 반민주, 신식민적인 “아프리카 매판 계급,”¹³⁾ 그리고 독재 정권이 독립 국가를 또 다른 억압과 종속 체제인 신식민 국가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한다. 아체베도 독립 나이지리아(Nigeria)에서 벌어진 지속적인 부패와 쿠데타를 목격하고 『나이지리아의 문제』(*The Trouble with Nigeria*)에서 파행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가 거론하는 핵심 원인은 “지도력의 실패”¹⁴⁾이며, 이는 종족주의, 사회적 불평등, 부패 등의 문제와 함께 독립 이후 나이지리아를 갈등과 고통의 공간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원인은 대체로 식민 지배 때문에 고착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억압적 정치 경제체제, 종족주의, 지배 계층과 중산 계층의 부패와 타락, 독재, 그리고 여전한 서구의 간접적인 정치 경제적 개입 등이다.

12) Ngũgĩ wa Thiong'o, *Moving the Centre: The Struggle for Cultural Freedoms*, London: Heinemann, 1993, p.65.

13) Ibid., p.70.

14) Chinua Achebe, *The Trouble with Nigeria*, Enugu: Fourth Dimension Publishers, 1983, p.1.

이에 반해 음왕기는 다른 작품뿐만 아니라 『빨리 죽여주요』에서 포스트 식민 국가가 실패한 배경과 원인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 너무 명백해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음왕기는 실패의 결과인 개인과 하층민의 고통과 곤경을 강력하게 재현하는 데 주력한다. 다시 말해 그는 “포스트식민 케냐의 도시 삶에 대한 가혹한 설명”¹⁵⁾에만 매진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음왕기는 응구기와 같은 사실주의 소설가가 아닌 자연주의 소설가로 평가받는다. 이 평가는 그가 있는 그대로의 포스트 식민 국가를 묘사할 뿐 응구기처럼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⁶⁾ 하지만 본 논문은 단순하게 묘사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이러한 평가가 다소 편협한 시각일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를 실패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무지를 들어내거나 경시로 간주하는 주장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음왕기의 있는 그대로의 재현은 고통, 빈곤, 박탈의 냉혹한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독자 혹은 케냐인이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구체적인 소설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포스트식민 국가의 실패를 문제시하는 『빨리 죽여주요』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가혹한 현실을 재현한다. 첫 번째는 이른바 “음왕기적인 인물”(Mwangian Man)로¹⁷⁾ 불리는 주인공이 버텨내는 힘든 삶을 소설에 재현하며 실패를 고발한다. ‘음왕기적인 인물’은 교육받은 개인이나 자기 능력

15) Ayo Kehinde, “Post-Independence Disillusionment in Contemporary African Fiction: The Example of Meja Mwangi’s *Kill Me Quick*,” *Nordic Journal of African Studies*, Vol.13, No. 2, 2004, p.229.

16) Anna Kula, “Human Rights and Displacement in Literature: The Case of M. Mwangi’s *Kill Me Quick* and K. Kombani’s *The Last Villains of Molo*,” *Africology: The Journal of Pan African Studies*, Vol.12, No.7, 2018, p.104; Kehinde, op. cit., p.230.

17) Kopf, op. cit., p.102; Kurtz, op. cit., p.124.

을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차지하지 못해 절망, 환멸, 냉소에 휩싸인 인물이다. 메자와 마이나(Maina)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삼부작인 『바퀴벌레 춤』의 더스맨 곤자가(Dusman Gonzaga)와 『강변로 아래로』의 벤(Ben)과 같은 이들을 말한다. 두 번째는 주인공의 실업, 무기력, 좌절, 범죄로 이어지는 여정에서 머무르는 도시, 슬럼, 농장, 교도소, 고향 등의 공간이 보여주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이다. 음왕기는 인물과 공간이 엮어내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 포스트식민 국가의 실패가 낳은 케냐인의 고통과 좌절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낸다. 첫 번째 경로는 이 장에서 다루고, 두 번째는 3장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인물을 통한 폭로는 주인공인 메자와 마이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방 농촌 출신인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도시로 온 젊은이들이다. 둘은 뒷골목에 같이 거주하며 쓰레기나 다름없는 버려진 음식을 먹으며 지낸다. 소설 시작 부분에서 메자는 도시에 온 지 3일밖에 되지 않는 인물로 그려지고, 마이나는 장기간 뒷골목 생활을 이어온 인물로 묘사된다. 이들은 뒷골목과 백인 농장, 다시 뒷골목으로 복귀하는 시기와 이후 교도소에서 만나는 시기에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 헤어진 시기에 두 사람의 여정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중국에는 범죄로 끝난다. 이 기간 메자는 고향을 잠시 방문한 후 채석장 일을 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후 도둑질로 연명한다. 마이나는 갱단의 일원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고향에서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중죄를 짓는다. 12장으로 나누어 펼쳐지고 있는 이들의 여정은 메자가 절도로 교도소로 다시 오고 마이나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약 10년 동안 진행된 이야기이다.

범죄자로 추락한 주인공들의 여정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이들이 겪는 실업-빈곤-범죄의 여정은 독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케냐 도시 하층민이 이어가는 일반적인 삶의 양상이기도 하다. 여정은 취업을 위해 지방의 고향에서 올라온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가난한 지방 출신

인 이들은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의무를 진 존재이다. 부담스러운 학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중등학교 교육을 받게 한 이유는 단지 하나이다. 이들이 도시에서 취업해야만 고향 가족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업이라는 새로운 기회는 제공되지 않는다. 구직에 실패한 메자에게 실업 상태로 장기간 뒷골목에 머무르고 있는 마이나가 한 말에서 실업의 문제가 케냐 전체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일자리는 없어. 어디나 똑같은 이야기뿐이야”(2). 실제 1970년대 케냐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이나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¹⁸⁾ 그래서 국가의 미래를 상징하는 젊은이에게 일자리와 같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을 구축하지 못한 것은 “독립 이후 케냐와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실패를 반영한다.”¹⁹⁾

음양기는 새로운 국가의 실패가 삶의 양상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주인공들이 처한 비인간적 삶의 상태를 부각하면서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방기하고 있는 국가의 무책임함을 강조한다. 뒷골목은 쓰레기와 부패한 음식으로 연명하는 곳이다. 메자와 마이나는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가져오고, 뒷골목에서 자고 살았다”(9). 슈퍼마켓 쓰레기통에서 상한 음식과 과일로 허기를 채우는 이들은 인간으로 묘사되기보다 쓰레기를 뒤지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 혹은 상한 음식을 두고 잡종 개 혹은 파리와 경쟁하는 ‘동물’과 같은 존재로 그려진다. 이들을 쓰레기나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킨 상황은 분명 실패한 포스트식민 국가가 만든 하층민의 곤경을 가리킨다. 아울러 주인공들이 먹는 부패한 음식은 다른 의미를 포함한다. 국가 운영에서 지배 계층의 부정과 부패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부와 지배 계층의 부패와 무능력이 주거와 음식 등 기본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삶으로

18) Kehinde, op. cit., p.233.

19) Ibid., p.232.

몰아갔음을 말해준다.²⁰⁾

포스트식민 국가의 실패는 식민 착취로 무너진 케냐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로 전환하는 것도 방해한다. 국가가 절대적 빈곤 상태의 하층민을 보호하지 않는 구조는 사회 전반적으로 하층민의 삶에 무관심한 상황을 야기하고 심지어 이들을 착취하는 악행을 조장한다. 불신, 사기와 착취가 만연한 부정적인 사회는 주인공들이 만난 이른바 중산 계층으로 볼 수 있는 고용주나 중간상인의 사기와 착취에서 드러난다. 이들은 3장에서 논의될 백인 농장의 감독관이나 요리사 보이(Boi)와 더불어 이권에만 집착하는 타락한 중산 계층의 속성을 지닌다. 이런 유형의 인물은 음왕기의 다른 소설에도 등장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퀴벌레 춤』의 집주인 톰보 쿠브와(Tumbo Kubwa)와 시청 간부 키멘데(Kimende)이다. 이들은 탐욕적인 흑인 신흥 중산 계층의 속성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인물로 묘사된다. 이들과 비교해서 『빨리 죽여주소』의 고용주, 중간상인, 감독관 등은 지엽적인 인물로 한계는 있지만, 명백히 중산 계층의 면모를 지닌 인물이다. 음왕기가 초기 작품부터 이런 인물을 재현한 것은 중산 계층의 탐욕과 부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요컨대 음왕기가 탐욕스러운 중산 계층이 하층민의 빈곤과 곤경을 심화시킨 포스트식민 국가의 실패와 관계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경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소설 인물 재현을 통한 음왕기의 문제의식은 파농이 경계한 “유해한 중산 계층”²¹⁾과 응구기의 ‘아프리카 부당 이득자들’과 같은 계층에 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음왕기가 재현한 중간계층이 보이는 속성은 식민 지배 계층이 남기고 간 직책과 이권을 차지한 유해한 중산 계층의 속성을

20) Francis Etsé Awitor, The Aesthetic of Decay in Ayi Kwei Armah's *The Beautiful Ones Are Not Yet Born* and Meja Mwangi's *Kill Me Quick*, AIC, Vol. 142, 2014, p.48; Kula, op. cit., p.96.

21) Frantz Fanon, *The Wretched of the Earth*, Constance Farrington, trans., New York: Grove, 1963, p.175.

미고 있다.²²⁾ 이들은 국가와 다수 케냐인이 아닌 그들만의 이권과 권력에 집중하는 검은 얼굴을 한 지배 계층 혹은 착취자의 속성을 가진 인물로 소설에 등장한다.

주인공들이 쓰레기를 뒤지다 교외로 일거리를 찾아 나선 이유는 뒷골목의 쓰레기를 뒤지는 일마저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사소한 별채나 농사 막일로 벌이를 하나 이마저도 정상적인 대가를 받지 못한다. 또한 주인공들이 모아 거래한 금속 조각은 중간상인의 농간으로 제값을 받지 못한다. 주인공들은 이런 일거리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는다. 첫째는 대가가 없다는 것, 둘째는 고용주가 사기를 친다는 것이다. 두 가지 교훈은 “무엇을 했든 간에, 어떻게 했든 간에, 전혀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10)와 “모두가 속이려고 했다”(10)라는 말에서 확인된다. 두 가지 교훈이 던지는 의미는 밑바닥부터 착취 구조가 고착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착취 구조 “사다리의 제일 아랫단”(11)에 위치한 하층민은 부당한 약탈과 대우를 감내하는 현실에서 좌절한다. 결국 이 이야기는 중산 계층으로 대표되는 착취자가 위세를 떨치는 포스트식민 국가의 착취 구조와 하층민의 곤경을 고발하고 있는 부분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인공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꿀 수 없다. 이것은 가장 소박하고 인간적인 꿈을 이루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마이나의 푸념에서 강하게 전달된다. 마이나는 실업과 빈곤이 어릴 적 여자 친구와 결혼하고자 한 꿈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한다. “우리는 많은 꿈을 꾸었다.... 그러나 이젠 헛된 일이야. 어떤 꿈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35). 주인공들이 포스트식민 국가 케냐의 전형적인 하층민의 젊은이라면, 결혼으로 상징되는 꿈은 독립이 약속한 번영과 안정일 것이다. 그런 꿈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인공들이 느끼는 감정은 절망이고

22) Ibid., p.155.

환멸이고 무기력이다. 이런 감정은 부와 안정이라는 독립의 혜택을 모든 케냐인이 나누지 못하고 일부의 특권이 된 현실을 목격하고 또한 특권으로 획득하는 부와 안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불평등과 빈곤을 경험하며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주인공이 보이는 절망, 환멸, 무기력은 포스트식민의 실패로 팽배한 케냐인 나아가 아프리카인의 정서로 볼 수 있다.

착취 구조의 밑바닥에서 생존과 미래에 대한 꿈을 봉쇄당한 주인공들의 선택은 제한적이다. 마이나의 말처럼 “대로(main street)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끝내 교도소로 가든지 혹은 뒷골목에 남아 썩어 문드러지든지를 선택하는 것만 이제 남아있다.”(8) 하지만 대로가 의미하는 특권과 혜택을 누리는 삶은 이들 몫이 아니다. 이들에겐 굶어 죽거나 뒷골목에서 쓰레기로 연명할 것인가 아니면 갱단 일원이 되어서라도 생존할 것인가라는 선택만 남아있다. 대부분 하층민은 갱단 일원이 되고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범죄자의 길을 강요받는다. 범죄가 생존의 방법으로 일상화된 것은 분명 문제이다. 이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생존 방식이 부족하고 빈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런 측면에서 하층민의 범죄 행위는 불법이나 부정을 넘어서는 의미를 포함한다. 먼저 언급한 것처럼 범죄는 버려진 삶에서 내몰린 생존 방식을 뜻한다. 어쩔 수 없는 생존 방식이라는 의미는 마이나가 레이저(Razor) 갱단 일행을 보고 “이들도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몹시 가난한 사람들”(53)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나타난다.

아울러 범죄는 특권과 혜택을 독차지한 지배 계층과 백인을 향한 뒤틀린 반발로도 읽을 수 있다. 즉 하층민이 독립 이후 함께 누려야 했던 혜택의 몫을 찾으려는 수단으로 범죄를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소설에서 주인공들이 벌인 사기와 절도의 대상이 대개 부촌 거주민과 백인이라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특히 주인공들이 처음으로 물건을 훔친 이야기에서 이를 유추할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슈퍼마켓에서 마이나는 썩은 사과를 훔치지만, 경비원들은 값비싼 보석을 훔쳤다고 오인하고 추격한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보석과 사과는 하층민이 가질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보석은 고가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과는 썩은 것이지만 나이로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두 상품은 지배 계층과 부자의 특권을 상징한다.

반면 상품을 훔친 마이나와 영문도 모르고 이를 들고 도망친 메자의 행위는 강탈당한 몫을 찾으려는 시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절도는 지배 계층과 부자에게는 특권을 침해한 행위이지만, 하층민인 주인공의 처지에서는 생존을 위해 몫을 되찾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마이나가 도망가고 메자가 특권을 의미하는 대로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몫을 찾으려는 행위는 무산된다. 이후의 이들의 사기와 절도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맥락에서 범죄는 일종의 “착취자와 피착취자 간의 확대되고 심각한 투쟁의 한 영역”²³⁾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분명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러나 독립 이후 악화된 계층 불평등으로 하층민은 합법과 정당성이 아닌 생존 여부를 행위의 척도로 삼을 수밖에 없다. 또한 계층 불평등의 심화가 부정과 탈법을 동원해 독식한 지배 계층과 부자의 행위 결과라는 점에서 하층민은 그들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마이나가 부촌 거주민에게 벌인 우유배달 사기를 “새로운 사업, 진짜 사업, 부끄럽지 않은 사업”(84)으로 지칭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소설은 하층민이 저지른 비도덕적 행위와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지배 계층의 비도덕성과 계층 불평등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던지시 제시한다.

범죄는 불평등을 문제시하는 뒤틀린 반발에만 그치지 않고 아이러니하게도 불평등으로 단절된 인간관계를 복원하는 공동체의 시도와 연결되기도 한다. 불평등은 빈곤과 갈등을 초래하며 가족, 지역, 계층 간의 단절과 해체를 촉진한다. 특히 버림받은 하층민의 경우에는 심각하다. 하층민은

23) Kehinde, op. cit., p.234.

도시 공동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향과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한다. 더 이상 주인공들에게 고향은 “유일한 탈출구”(129)가 될 수 없다. 마이나 가족 이야기처럼 가족 공동체는 무너진다. 도시로 간 자녀는 연락이 단절되고, 부모는 빈곤과 질병으로 고향을 등져야 하는 불행이 지방 고향에 비일비재하다.

결국 이전 공동체는 갯단과 교도소 감방으로 대체된다. 농담으로 볼 수 있지만 사기로 갯단의 생존을 책임진 마이나는 갯단 일원을 아들이라고 부르며 판잣집에서 단지 먹고 크려고 노력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아빠 마이나가 너희들을 위해 일을 할거야”(84)라고 말하며 마치 가장처럼 행동한다. 빈곤을 공유하고 생존을 위해 범죄를 선택한 이들이 가족처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소설에서 갯단보다 더욱 밀접한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는 곳으로 그려진 곳은 교도소 감방이다. “우리는 집에 왔다”(113)는 교도관의 말처럼 이곳은 버림받고 범죄로 생존해온 하층민의 집이다. 역설적이지만 주인공들과 감방 동료는 이곳에서 사회보다 편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한다. 이들은 자유를 박탈당했지만, 교도소가 도시 호텔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의식주가 무료로 제공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석방 이후에도 ‘지옥 같은 삶’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친구가 있는 감방으로의 빠른 귀환을 바라는 곳이기도 하다. 소설은 “웃어주는 사람들”(141)과 “도시 거리의 무관심하고 공허한 얼굴”(141)이라는 대비되는 표현으로 탐욕과 부패로 가혹한 사회보다 감방이 서로를 챙기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동료애가 충만한 곳임을 알려준다. 범죄자가 된 하층민이 사회보다 감방에서 안전, 편안, 행복, 우정 등과 같은 정서를 경험한다는 것은 사회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인은 불평등이 고착시킨 심각한 빈곤이다. 이런 점에서 감방 이야기는 공동체에 대한 대안 이야기가 아니라 비정상성이 만연한 포스트식민 국가의 실패에 대한 고발이다.

따라서 음왕기는 포스트식민 국가의 실패에 관한 원인과 배경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실업, 빈곤, 범죄로 초래된 하층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재현하는 것을 통해 독자와 케냐인이 무엇이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게 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도록 한다. 바로 독립의 대의를 배반한 포스트식민 국가의 문제를 냉철하게 직시하도록 한다.

3. 새로운 국가의 실패를 증명하는 포스트식민 도시 공간

이 글은 2장에서 실업-빈곤-범죄의 여정을 따라 포스트식민 국가의 실패가 만든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주인공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포스트식민 공간의 불평등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역사, 정치, 경제 등과 관련된 논의를 참고하며 소설이 재현한 공간이 포스트식민 국가의 불평등과 차별을 어떻게 투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먼저 음왕기가 소설 배경을 선택한 나이로비라는 포스트식민 도시를 살펴보는 것이 소설을 이해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도시 형성부터 나이로비는 불평등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차가운 물’을 의미하는 마사이어(Masai) ‘엔카레 나이로비’(Enkare Nairobi)에서 유래한 지명인 나이로비의 역사는 다소 짧다. 1895년에서 시작된 항구 도시 몸바사(Mombasa)와 빅토리아 호수 연안의 키수무(Kisumu)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 과정에 설치된 하나의 역으로 시작된 나이로비는 영국 식민 지배로 만들어진 도시였다.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는 영국령 동아프리카의 수도가 된 1907년이다.²⁴⁾ 그러나 ‘햇살 가득한 녹색

24) 양철준, 『나이로비-아프리카의 관문』, 서울: 살림, 2004, 2~7쪽.

도시'(green city in the sun)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나이로비는 식민 지배 시기 영국인의 공간이지 케냐인의 공간이 아니었다. 나이로비는 영국 식민 지배의 산물이고 영국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에 불과했다. 식민 당국은 엄격한 거주 지역 제한과 통행법을 통해 영국인, 인도인, 케냐인의 거주지를 분리하고 케냐인의 도시 진입을 봉쇄하거나 불법이라는 명목으로 추방하는 인종 분리 정책을 추진했다. 1954년까지 케냐인은 단순한 체류자에 불과하고 입차권을 가질 수 없었다.²⁵⁾ 이 과정은 케냐인의 경제적, 공간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봉쇄와 추방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 나이로비 주변의 거대한 슬럼이었다.²⁶⁾ 그래서 케냐인에게 식민 지배 시기 나이로비는 경제적 현실, 불평등, 생활방식이 매우 차이가 나는 서로 다른 두 인종, 즉 백인과 흑인으로 분할되고 대립하는 식민 세계였다.²⁷⁾ 이 식민 세계에서 안전하고 풍요롭고 안락한 삶은 백인에게만 허용되었다.

독립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영국 식민 지배가 초래한 차별과 불평등의 도시 현실은 독립으로 극복되지 못했다. 케냐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독립 후 토지 재분배와 발전 정책이 소수의 케냐인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엘리트 등 일부 계층이 독립의 결실을 독차지하며 백인의 자리를 대신했다. 이들은 식민 지배로 고통을 겪고 빈곤층으로 추락한 수많은 케냐인을 위해 국가자원을 활용하고 미래를 위한 발전 정책을 마련하기보다 이전 식민 지배 계층이 누린 권력과 부를 차지하는 데만 열중했다. 그 결과는 비참했다. 식민 체제하에서 제도적으로 조장된 엄청난 불평등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²⁸⁾ 이는 1970년 말 인구 25%를 차지하는 빈민이 국가 총수입의 6%를,

25) Mike David, *Planet of Slums*, 김정아 옮김, 『슬럼, 지구를 뒤덮다: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도시의 빈곤화』, 서울: 돌베개, 2007, 72쪽.

26) Kurtz, op. cit., p.78.

27) Fanon, op. cit., p.40.

28) Kurtz, op. cit., p.35.

인구 10%인 부자가 국가 총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²⁹⁾

불평등의 공간으로서 도시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 후 이루어진 급격한 인구 유입과 도시화도 공간의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갔다. 독립 이후 케냐를 포함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역사상 가장 빠른 인구 성장을 보였고, 증가한 인구는 지방의 토지 부족, 일자리 부족 등의 요인으로 생존을 위해 도시로 이동했다. 하지만 증가한 인구는 토지, 일자리, 개발을 위한 공적 자금 등의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심각한 경쟁을 불러왔다.³⁰⁾ 지배 계층은 이러한 현상이 던지는 경고 또한 외면했다. 이들은 오직 그들과 그들이 속한 집단의 권력과 이권을 지키는 데 매진했다. 그 결과는 명확했다. 도시화는 빈곤화와 슬럼화로 귀결되고, 지방 빈곤이 도시 빈곤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고 말았다.³¹⁾

『빨리 죽여주요』가 재현하는 도시 공간은 이러한 배경을 전제한다. 도시는 부와 권력의 유무에 따른 “두 세계의 만남의 공간이자 전쟁터”³²⁾가 된다. 소설에서 먼저 주목하는 공간은 대로와 대립하는 뒷골목이다. 뒷골목은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올라온 주인공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공간이다. 뒷골목에 사는 이들에게 도시는 냉혹한 세계이다. 도시는 바쁘게 움직이는 무관심한 사람들과 기이한 성처럼 위압적인 건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도시의 무관심과 기이함은 새로움과 낯섦이 아닌

29) Johansson, op. cit., p.2.

30) Daniel Branch, *Kenya: Between Hope and Despair, 1963-2011*,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1, p.16.

31) Ndirangu Mwaura, *Kenya Today: Breaking the Yoke of Colonialism in Africa*, New York: Algora Publishing, 2005, p.125; Franklin Obeng-Odoom, “‘Abnormal’ Urbanization in Africa: A Dissenting View”, *African Geographical Review*, Vol. 29, No. 2, 2010, p.13.

32) Alessandro Triulzi, “African Cities, Historical Memory and Street Buzz,” Lain Chambers and Lidia Curti, eds., *The Post-Colonial Question*, London: Routledge, 1996, p.81.

배제와 추방의 기제가 낡은 인상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바로 도시 거주민이 주인공들을 공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드러낸 분위기이다. 그들에게 주인공들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해야 할 상대이자 자기 몫을 위협하는 적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주인공들은 케냐인이지만 동등한 케냐인이 아닌 이방인, 비인간적인 환경에 방치해도 되는 동물 혹은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한다.

주인공들도 이러한 도시 거주민의 태도를 경험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들이 도시 거주자에게 적대적인 존재로, 버림받은 존재로 각인되어 있다는 점은 마이나가 메자에게 들려준 뒷골목에서 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원칙에서 알 수 있다. 원칙은 일자리와 안정적 삶을 누리는 도시 거주자인 “그들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또한 대로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한다”(3)는 것이다. 이러한 생존을 위한 원칙은 그들(소수의 도시 거주민)과 주인공들(하층민) 간의 경계 짓기를 가리킨다. 경계 짓기는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승리한 일부 도시 거주민의 냉정함과 고착된 빈부에 따른 계층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대로는 부와 안정을 상징하는 곳이고, 이것을 차지한 이들만이 온전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곳이다. 이곳은 이방인, 불량자, 실업자가 접근하지 말아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결국 직장 대로는 독립의 혜택을 누리는 가진 자들의 특권을 상징한다. 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 다수 하층민에게 특권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특권은 경쟁 상대의 배제와 추방을 통해 지속된다. 주인공이 도시에서 느낀 무관심과 냉혹함이라는 인상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특권을 누리는 자와 배제된 자라는 경계 짓기는 불평등한 계층 문제가 도시에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갓 도시로 온 메자의 시선을 통해 드러난다. “유령처럼 지나가는 남루한 거지들”(1)과 메자와 같은 이들에게 신경도 쓰지 않으며 “더러운 악취로 코를 찡그리는 배가 나온 경영진들”(1)은 계층 불평등의 심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설은 앞서 언

급한 대로와 뒷골목의 공간을 포함해 대립적인 공간들의 설정을 통해 나이로비가 불평등과 차별의 공간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한다. 추가되는 대립하는 공간은 부촌과 슬럼, 도시와 지방이다. 대립하는 공간은 부자와 빈민이라는 계층 혹은 계급의 문제를 부각하는 설정이기도 하다. 대립하는 공간에 대한 소설 속의 이야기는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에서 희생자인 하층민의 공간인 뒷골목, 슬럼, 지방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소설에는 특권화된 공간, 다시 말해 대로, 부촌과 도시라는 공간은 새로운 국가의 권력과 이권을 독점한 계층의 공간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하층민 혹은 빈민의 공간은 굶주림, 고통, 좌절, 오염, 범죄로 가득 찬 버려진 공간으로 묘사된다.

뒷골목과 함께 불평등과 빈곤의 공간으로 소설에서 그려지고 있는 곳이 슬럼이다. 슬럼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식민 지배의 산물이다. 독립 이후 슬럼은 인구 성장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 이후 아프리카의 슬럼 성장률이 아프리카 도시 성장률의 2배를 넘어선 것에서 알 수 있다.³³⁾ 케냐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를 흡수한 공간이 슬럼이다. 그 예가 화장실, 수도 시설, 하수구 시설 등 도시 기반 시설이 거의 없는 나이로비 변두리의 대표적인 슬럼인 마타레(Mathare)와 키베라(Kibera)와 같은 곳이다. 독립 직후 확장되는 슬럼의 실태는 약 7만 명의 케냐인이 이주한 마타레의 경우에서 파악된다.³⁴⁾ 그리고 슬럼이 현재까지도 케냐의 큰 문제임을 확인해주는 예가 1999년 인구 조사를 통해 밝혀진 키베라의 상황이다. 키베라의 인구밀도가 1km²당 8만 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는 빈곤을 상징하는 케냐의 슬럼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또한 이 결과와 비교해 나이로비 부촌인 카렌(Karen) 교외 녹지대의 인구밀도가 1km²당 350명이라는 수치는 포스트식민 국가의 더욱 악화된 불

33) David, 앞의 책, 32쪽.

34) Branch, op. cit., p.72.

평등의 현실을 확인시켜준다.³⁵⁾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케냐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의 도시화는 가난한 도시 인구의 증가와 그들이 거주한 슬럼 확장의 과정이 된다. 명백히 슬럼의 상황은 독립 이후에도 개선되지 못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말하는 확실한 증거이다. 기술한 내용처럼 독립 이후 가난한 케냐인이 거주하는 슬럼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슬럼은 소설에서도 샐티 랜드(Shanty Land)로 불리며 버림받은 빈민의 공간으로 묘사된다. 슬럼 이야기는 메자와 헤어진 마이나가 길거리에서 레이저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레이저는 마이나의 학교 동창이자 슬럼에서 자신의 일당과 함께 사는 갱단 두목이다. 갈 곳이 없던 마이나는 주저하다가 갱단에 합류한다. 슬럼의 열악한 모습은 마이나가 레이저를 만나기 직전 보았던 부촌에 대한 묘사와 비교되면서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강하게 표출한다. 부촌은 저택이 늘어진 힐 로드(Hill Road) 지역이다. 소설은 라디오와 축음기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 점심 음식이 풍기는 냄새, 자동차를 타고 식사하러오는 집주인들, 울타리와 경비견 등의 묘사와 더불어 허기를 느끼며 갈 곳 없이 서성이는 마이나의 모습을 함께 배치한다. 마이나라는 존재는 이 공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집주인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그를 이질적인 존재로 만들고, 경비견은 그를 추방해야 할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다. 특히 경비견은 나이로비의 엄청난 빈부격차와 치안 불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물로 자주 거론된다.³⁶⁾ 이런 이유로 음왕기는 이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소설인 『바퀴벌레 춤』에서도 경비견을 등장시킨다. 『바퀴벌레 춤』의 주인공 더스맨을 공격하는 부촌 지역의 경비견과 맹견 조심이라는 의미의 ‘음브와 칼리’(Mbwa Kali)라는 대문에 부착된 문구는 단순한 경비의 목적을 넘어선다.³⁷⁾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로 인해 가난한

35) David, 앞의 책, 129쪽.

36) 양철준, 앞의 책, 49쪽.

다수의 케냐인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과 부자가 빈민의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기적인 계급적 태도의 문제가 존재한다. 음양기가 부촌을 묘사하며 경비견을 언급한 것은 이런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슬럼에 관한 언급은 부촌을 기술한 이후 바로 이어진다. 마이나의 시선을 통해 슬럼의 모습이 펼쳐진다. 마이나는 “특별한 형태 없이 비를 막기 위해 종이, 양철, 진흙 등으로 만들어진”(51) 판잣집에 당황하고, 도시의 화려한 고층 건물들 바로 옆에 “연기와 오줌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많은 악취”(51)가 가득 찬 판자촌 골짜기가 있다는 것에 놀라워한다. 이러한 소설의 묘사는 실패한 포스트식민 국가와 도시가 방치하는 많은 문제를 나타내는 도시 빈곤의 전형으로서 슬럼을 그대로 보여준다.³⁸⁾ 슬럼의 하층민들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며 나름대로 미래에 대해 기대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갱단 일행처럼 “굶주림과 절망”(79)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다.

슬럼은 또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것은 빈번한 화재이다. 판잣집 화재, 인구 밀집, 안전하지 못한 난방과 취사 화력으로 인해 슬럼은 화재가 발생할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³⁹⁾ 마이나가 갱단과 머문 슬럼도 화재로 전소된다. 마이나는 무너지는 판잣집을 바라보며 “괴로운 비명, 열기와 연기로 숨이 막힌 채 움직일 수 없는”(80) 사람들에게서 최소한의 삶의 공간마저 상실한 고통을 목격한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고통과 상실을 극복하는 과정 혹은 새로운 주거시설의 확보 또한 이들의 몫이다. 국가나 지배 계층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슬럼 거주자들은 국가에 의해 방치되고 버림받은 이들에 불과하다. 소설은 이들을 두려움과 빈곤에 짓눌려 숲에서 피난처를 찾는 겁에 질린 동물로 비유하며 스스로 다른 버려진 골짜기에 판잣집을 지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어둡고 서늘한 숲의 그늘에 샌티

37) Meja Mwangi, *The Cockroach Dance*, London: Longman, 1989, p.42.

38) Kopf, op. cit., p.41.

39) David, 앞의 책, 160쪽.

랜드는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82). 소설에서 이렇게 슬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재형성되고 있다고 기술한 것은 여러 의미를 포함한다. 일차적으로 슬럼의 재형성을 거론한 것은 가난과 비인간적인 주거 환경에 대한 폭로이다. 또한 이는 슬럼을 방치하며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포스트식민 국가의 잘못과 무능을 꼬집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대로와 뒷골목, 부촌과 슬럼의 대비는 도시를 둘러싼 공간의 대비이다. 지금부터 살펴볼 도시와 지방의 대비도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방과 도시를 대비시키는 것도 도시와 관련된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비는 아프리카 경제의 근간인 농업이 어떻게 붕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지방은 주인공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소설에 등장한다. 주인공에게 고향은 이중적 감정이 뒤섞인 곳이다. 가족이 있는 따뜻함과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기억되지만, 이와 함께 고통스럽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죄책감은 그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부모가 제공한 물질적, 심리적 지원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가족의 빈곤을 해결하고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도시에서 구하지 못한 연유로 귀향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이나가 메자에게 말한 “내가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28)와 일자리 없이 돌아간다면 “가족의 불행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야”(28)는 이러한 책임감과 죄책감에서 나온 토로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들은 고향에서 가족과 살며 농사와 같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분투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식민 지배 이후 황폐해진 농촌으로 대표되는 지방이 더욱 빈곤한 상태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 시기 케냐의 농업 경제를 장악한 이들은 영국 백인 정착민들

이었고, 식민 당국은 이들에게 헐값의 토지를 팔아넘기거나 금융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줌으로써 기존 케냐 소작농과 빈농의 몰락을 가져왔다.⁴⁰⁾ 독립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백인 소유의 토지는 필요한 농민에게 재분배하지 않고 대부분 중산 계층을 포함한 지배 계층의 것이 되었다. 지배 계층은 영국 융자금을 이용하며 백인 정착민의 토지를 구매하며 기득권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⁴¹⁾ 이런 상황은 식민 지배 시기 토지를 강탈당한 다수의 케냐인의 빈곤과 고통을 경감시키기보다 존속 혹은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인구의 폭발적 증가도 농촌의 피폐화를 불러왔다.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증가한 인구 모두를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다. 실제 통계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20% 미만의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증가한 인구에게 충분하지 못했다. 1962년에 800만 명이었던 인구가 1978년에는 1,500만 명에 육박하면서 토지 부족은 더욱 심해졌다.⁴²⁾ 다른 자료도 이를 증명한다. 195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아프리카 인구가 3배 정도 증가했고 그 중 ⅔가 토지가 있는 지방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인구 증가와 지방의 토지 부족 현상의 관계를 설명한다.⁴³⁾ 농촌의 토지 부족 현상은 마이나가 들려주는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읽을 수 있다. 아버지는 조그만 오두막을 지을 만큼도 되지 않는 그리고 마이나를 제외한 5남매와 함께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 협소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땅이 충분하지 않아”(27)라는 마이나의 푸념은 실직 상태의 자신이 귀향하지 못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고향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아가 이야기는 독

40) Richard J. Reid, *A History of Modern Africa: 1800 to the Present*, 이석호 옮김, 『현대 아프리카의 역사』, 서울: 삼천리, 2013, 348~353쪽.

41) Frederick Cooper, *Africa Since 1940: The Past of the Pres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174~175.

42) Martin Meredith, *The Fate of Africa: A History of the Continent since Independence*, 이순희 옮김, 『아프리카의 운명』, 서울: 휴머니스트, 2014, 375쪽.

43) 위의 책, 226쪽.

립 이후 부적절한 토지 재분배 정책의 실패로 가난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의 근간인 농업에 대한 정부와 지배 계층의 장기 계획의 부재도 지방의 피폐화를 가져왔다. 부재 혹은 비효율적인 계획은 농업 경제의 문제를 해소하거나 농업 생산의 안정을 도모하지 못했다. 지배 계층과 엘리트의 이득을 고려하는 잘못된 농업 정책으로 대부분 소농인 지방 농민은 식민 지배 이후 고착된 착취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거론되는 착취 형태는 외국인 소유 대농장의 노동력 착취, 독점 구매자의 농산물의 저가 매입, 고가의 저질 수입 상품 구매에 따른 착취 등이다.⁴⁴⁾ 이러한 국내의 착취 구조에서 농민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었다.

가뭄과 토지의 황폐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정책도 농촌의 빈곤을 악화시켰다. 음왕기는 마이나가 방문한 고향 이야기에서 이 문제를 낚지시 끼워 넣고 있다. 반복적인 가뭄으로 인한 옥수수 농사의 실패는 고향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고질적인 가뭄 관리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은 몇몇 사람들의 기아와 죽음이라는 비극을 낳는다. 도움 요청도 거부된다. 요청받은 도시는 무관심할 뿐이다. 그래서 전근대적인 주술사를 통해 가뭄을 해결하려는 마을 사람들의 행위는 미개나 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뭄으로 인한 고통과 이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와 도시 사람들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토지의 피폐화와 토지 부족으로 자경을 할 수 없는 농민은 저임금을 받고 백인 농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도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 『빨리 죽여주오』는 이러한 상황을 주인공의 이야기로 들려준다. 소설은 주인공들의 비참한 뒷골목 삶을 통해 토지 부족으로 발생한 도시 이주의 문제를 보여주고, 백인 소유 농장에 고용된 이들의 힘든 생활에서 생존을 위해 농민

44) Mwaura, op. cit., p.9.

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백인 농장은 지방 빈곤 문제와의 관련성을 넘어 빈곤이 독립 이후 식민 잔재의 문제와도 관계있음을 거론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일자리 찾기에 실패한 주인공들에게 농장 일을 제시한 이는 보이이다. 둘은 괜찮은 급여와 숙소를 제공한다는 말에 따라나선다. 그들은 뒷골목에서 벗어나고자 “비, 추위와 바람을 막는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자고 사람이 먹는 음식을 다시 먹는 것”(14)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농장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보이가 백인 농장주의 지시로 뒷골목에 온 이유는 노골적이다. 케냐 어디에 가도 찾을 수 있는 “값싼 젊은이”(13)를 찾기 위해서이다. 이들이 값싸다는 것은 정당한 노동 대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숙소와 급여도 형편없다. 지급된 오두막은 빈대, 벼룩과 쥐의 소굴로 지칭될 정도로 열악하다. 주인공들에게 지급되는 식사 배급과 급여도 케냐인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드러낸다. 매일 저녁 옥수수죽 한 통과 탈지유 1 파인트(pint)로 지급되는 식사는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양이다. 이들이 받는 월 60 실링(shilling)도 최소한의 생존비도 되지 못한다. 이들에게 굶주림을 겨우 벗어나게 할 비용인 월 1 파운드(pound), 가족 부양을 위해서는 월 20파운드 필요하다는 언급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급여이다. 그런데도 농장주는 주인공들을 “냄새나는 바보”(20)라고 비하하고 “청소년 범죄자”(20)라고 경멸하며 어처구니없는 핑계로 식사와 급여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으박지른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식민 지배 시기와 다름없는 백인과 케냐인의 착취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지점이다. 또한 백인 농장에서 주인공들이 비인간적인 공간에 방치된다는 것은 케냐인을 여전히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음왕기는 반복적으로 주인공을 인간이 아닌 동물과 같은 존재로 언급하며 이 점을 강조한다. 주인공들은 뒷골목에서 개와 파리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였듯이, 농장에서도 빈대, 벼룩과 쥐와 같

은 존재로 축소된다. 농장 이야기는 케냐인의 독립 국가가 건설되었음에도 백인이 여전히 흑인인 케냐인을 식민 지배 시기 하찮은 하인처럼 그리고 열등한 야만인이나 잠재적인 범죄자처럼 간주하는 인종차별적 태도를 계속해서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착취와 차별의 문제는 백인 농장주와 감독관, 보이의 묘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소설은 농장주가 착취 구조 속에서 배만 불리고 있다는 점을 백인을 “돼지”(29)에 비유하거나 그의 “목을 둘러싼 지방층이 목걸이의 고리처럼 활기차게 춤추고 있었다”(24)라고 표현하며 전달한다. 이는 케냐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며 이권만 챙기는 서구 신식민주의자를 비꼰 비유로 볼 수 있다. 감독관과 보이에 대한 언급은 2장에서 언급한 ‘유해한 중산 계층’과 ‘아프리카 부당 이득자’를 상기시킨다. 음왕기는 감독관을 백인 농장주가 부여한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케냐인 하층민을 착취하고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는 데 일조하는 인물로 그린다. “먼저 권력과 지식을 차지한 감독관이 있고, 그가 이끄는 양과 같은 많은 사람이 있다”(18)는 묘사가 그것이다. 요리사인 보이도 탐욕으로 같은 케냐 하층민을 이용하는 인물로 설명한다. 이는 “아직 별지도 않은 얼마간의 돈을 받는 대가로 지나치게 열심히 도우려는 늙은 요리사가 있다”(18)라는 구절에서 파악된다.

이런 측면에서 백인 농장주-케냐인 감독/주방장-케냐 하층민과 같은 위계질서로 운영되고 백인과 흑인 케냐인의 착취 구조가 고착된 농장을 새로운 국가의 실패로 고착된 신식민 국가 케냐의 축소판 혹은 비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독립 이후에도 케냐에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서구를 백인 농장주로 본다면, 케냐인이지만 백인 농장주를 대신해 하층민을 착취하고 감시하는 감독관과 보이는 독립 국가의 일부 지배 계층과 엘리트로 간주할 수 있다.

이처럼 3장에서 대로와 뒷골목, 도시 중심부와 슬럼, 도시와 지방이라는 공간의 대립을 통해 살펴본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는 전혀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소설은 포스트식민 국가와 도시의 불평등 문제와 이로 인한 하층민의 고통이 식민 지배의 결과와 독립 이후의 식민 잔재, 아프리카인이 주도하는 독립 국가의 무능과 정책 부재, 지배 계층의 탐욕과 하층민에 대한 착취 등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초래한 결과임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다.

4. 나가며

음왕기가 『빨리 죽여주오』에서 포스트식민 국가의 문제를 드러내는 방식은 1세대 아프리카 소설가인 응구기와 아체베 등이 발표한 작품의 방식과 다른 경향을 띠고 있다. 『빨리 죽여주오』에는 응구기가 『피의 꽃잎』(*Petals of Blood*)에서 “유럽의 다른 이익 집단과 결탁한 소수의 흑인”⁴⁵⁾으로 표현하는 신식민적인 아프리카 매판 계급에 대한 노골적 재현과 비판이 없다. 마찬가지로 아체베가 『사바나의 개미 언덕』(*Anthills of the Savannah*)에서 “악랄하고 기형적인 괴물들”⁴⁶⁾과 “기생충들”⁴⁷⁾로 묘사하며 비판한 포스트식민 국가의 독재자와 지배 계층의 양태를 적나라하게 발가벗기지도 않는다. 또한 “희생자들, 빈민들, 짓밟힌 사람들, 대중들이 그들의 억압과 착취를 종식하기 위해 언제나 창과 화살을 들고, 서로의 손을 잡고서 용기와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투쟁해왔다”⁴⁸⁾는 『피의 꽃잎』의 내용처럼 변혁의 목소리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사바나의 개미 언덕』의 이켄(Ikem)과 같은 개혁적 지식인, 브라이모(Braimoh)와 같은 대의에 헌신하는 하층민을 등장시키며 억압과 불평등을 타개할 고민도 던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경향으로 음왕기를 당대 권력과 타협하는 작가 혹은 사회

45) Ngũgĩ wa Thiong'o, *Petals of Blood*, New York: Penguin, 2002, p.348.

46) Chinua Achebe, *Anthills of the Savannah*, Essex: Heinemann, 1987, p.52.

47) Ibid., p.160.

48) Ngũgĩ wa Thiong'o, op. cit., p.360.

현실에 침묵하는 작가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가 응구기와 아체베와 다른 방식으로 창작을 한 것은 아마도 당대 정치적 상황에 비롯된 것일 것이다. 종족주의 정치, 반대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부정과 부패가 맹위를 떨친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 대통령과 다니엘 아랍 모이(Daniel Arap Moi) 대통령의 통치시기에 정치적 목소리를 작품에 담는 것은 작가에게 추방, 감금, 투옥 등을 감당해야 하는 힘든 선택이기에 그러하다.⁴⁹⁾ 물론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개혁 혹은 개선에 관한 작가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음왕기는 응구기와 아체베와 같이 힘든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명백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작품에 투영하고 있다. 바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빨리 죽여주오』에서 그는 하층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대로 보여주며 응구기와 아체베가 비판했던 포스트식민 국가의 실패를 문제시하기 때문이다. 즉 소설에서 지배 계층이 아닌 하층민의 시점에서 빈곤과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하층민과 그들이 사는 비인간적인 공간을 생생하게 재현함으로써 실패한 포스트식민 국가의 심각한 현실의 핵심을 고발하는 것에서 파악된다. 그래서 『빨리 죽여주오』는 메자가 감방에서 마이나가 사형 선고를 받은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운명이라고 말하는데 진짜일까? 진짜일까?”(149)와 같은 소극적 질문을 던지며 고통스러운 하층민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소설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포스트식민 국가를 실패하게 했는지, 누가 독립의 대의를 배반하고 하층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는지를 이해하게 만드는 사회비판적 소설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아프리카 2세대 대표 작가로, 케냐의 대표적 작가인 응구기를 잇는 차세대 작가로서 음왕기를 평가한 것이 틀리지 않았

49) 거론된 케냐타와 모이 집권 시기 정치 상황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Meredith, 앞의 책, 375~378쪽; 526~529쪽.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아프리카 소설의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호명해야 하는 작가로 음왕기에 주목해야 한다. 나아가 오늘날까지 극복하지 못한 케냐를 포함한 아프리카의 계층 불평등과 빈곤의 심각성을 직시하기 위해 그의 작품이 던진 질문에 아프리카인과 독자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극복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이 음왕기가 소설 첫 페이지 헌사에 말한 어린 메자들을 도시 뒷골목과 슬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양철준, 『나이로비-아프리카의 관문』, 서울: 살림, 2004.

Achebe, Chinua, *The Trouble with Nigeria*, Enugu: Fourth Dimension Publishers, 1983.

_____, *Anthills of the Savannah*, Essex: Heinemann, 1987.

Awitor, Francis Etsé, "The Aesthetic of Decay in Ayi Kwei Armah's *The Beautiful Ones Are Not Yet Born* and Meja Mwangi's *Kill Me Quick*", *AIC*, Vol. 142, 2014.

Branch, Daniel, *Kenya: Between Hope and Despair, 1963-2011*,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1.

Calder, Angus. "Meja Mwangi's Novels", G. D. Killam, ed., *The Writing of East and Central Africa*, Nairobi: Heinemann, 1984.

Cooper, Frederick, *Africa Since 1940: The Past of the Pres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David, Mike, *Planet of Slums*, 김정아 옮김, 『슬럼, 지구를 뒤덮다: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도시의 빈곤화』, 서울: 돌베개, 2007.

Fanon, Frantz, *The Wretched of the Earth*, Constance Farrington, trans., New York: Grove, 1963.

Johansson, Lars, *In the Shadow of Neocolonialism: Meja Mwangi's Novels 1973-1990*, Umeå: The Printing Office of Umeå University, 1992.

Kehinde, Ayo, "Post-Independence Disillusionment in Contemporary African Fiction: The Example of Meja Mwangi's *Kill Me Quick*", *Nordic Journal of African Studies*, Vol. 13, No.2, 2004.

Kopf, Martina, "At Home with Nairobi's Working Poor: Reading Meja Mwangi's Urban Novels," Carl-Philipp Bodenstein, Kirsten Rüther, Martina Barker-Ciganikova, and DanielaWaldburger, eds., *The Politics of Housing in (Post-)Colonial Africa*, Berlin: De Gruyter Oldenbourg, 2020.

Kula, Anna, "Human Rights and Displacement in Literature: The Case of M. Mwangi's *Kill Me Quick* and K. Kombani's *The Last Villains of Molo*", *Africology: The Journal of Pan African Studies*, Vol.12, No.7, 2018.

Kurtz, J. Roger, *Urban Obsessions, Urban Fears: The Postcolonial Kenyan Novel*, Oxford: Africa World Press, 1998.

- Lindfors, Bernth, "Interview with Mwangi." *Kunapipi*, Vol. 1.2, 1979.
- Mello, Donnie Tonnie Kithendu, *Portrayal of Freedom and Existentialism in Meja Mwangi's Novels*, Beau Bassin: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20.
- Meredith, Martin, *The Fate of Africa: A History of the Continent since Independence*, 이순희 옮김, 『아프리카의 운명』, 서울: 휴머니스트, 2014.
- Mwangi, Meja, *Kill Me Quick*, London: Heinemann, 1973.
- _____, *The Cockroach Dance*. London: Longman, 1989.
- Mwaura, Ndirangu, *Kenya Today: Breaking the Yoke of Colonialism in Africa*, New York: Algora Publishing, 2005.
- Ngũgĩ wa Thiong'o, *Moving the Centre: The Struggle for Cultural Freedoms*. Heinemann, 1993.
- _____, *Petals of Blood*, New York: Penguin, 2002.
- Obeng-Odoom, Franklin, "'Abnormal' Urbanization in Africa: A Dissenting View", *African Geographical Review*, Vol. 29, No.2, 2010.
- Reid, Richard J., *A History of Modern Africa: 1800 to the Present*, 이석호 옮김, 『현대 아프리카의 역사』, 서울: 삼천리, 2013.
- Triulzi, Alessandro, "African Cities, Historical Memory and Street Buzz", Lain Chambers and Lidia Curti, eds., *The Post-Colonial Question*, London: Routledge, 1996.

| Abstract |

A Post-colonial City Transformed into an Unequal Space - Meja Mwangi's *Kill Me Quick*

Ha, Sang-Bok

Kill Me Quick is the novel of Meja Mwangi, who is recognized as the leading author of Kenyan urban fictions in the 1970s. In this novel, Mwangi vividly represents Nairobi's marginal spaces and the lower class who inhabited them. However, Mwangi does not simply show the hard lives of the lower class in despair. He does not directly mention the background of causing the lower class to suffer, but makes readers and Kenya people think about the background and cause through harsh descriptions. With reference to this poin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background of the failure of the post-colonial state was reflected in the content of the novel. Concretely, the paper examines what problems are projected in the novel in relation to the political and social failures of post-colonial nations through two paths. In the first path, the paper analyzes the painful lives of the main characters, and shows the consequences of the failure of the post-colonial state on the lives of the lower class. The second is a space-related review. It deals with the problem of a failed post-colonial state through the problems of inequality that characters experienced in various spaces. In conclusion, the paper confirms that the suffering of the lower class is linked to the causes of failure of the post-colonial nations such as inequality and poverty, irresponsibility and

incompetence of the state and the ruling class, greed and exploitation of the middle class, and the neo-colonial system.

Key Words: Meja Mwangi, *Kill Me Quick*, Post-colonial City, Poverty, Inequality

· 논문투고일: 2023년 2월 15일 · 심사완료일: 2023년 4월 21일 · 게재결정일: 2023년 4월 24일

